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유명님*, 김행란, 최배영, 김미희, 강경하(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1. 서론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8조(j)항을 통해 구체화되어 그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이행이 의무화되고 있다. 아직은 전통지식에 대한 개념인식에서부터 활용까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국경이 없는 지구촌시대에서는 각국의 전통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지식은 전통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유지·보존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소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지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

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 전통지식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 축제 개최, 관광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도모하고 있어, 이제는 전통지식의 활용에 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의 전통지식이 자원으로서 가진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유사개념의 검토를 통해 전통지식의 개념을 “한국 사회가 역사적 맥락에서 지역별로 고유하게 학습, 창출, 공유해온 지식체계, 생활양식, 규범으로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핵심가치”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전통지식 자원을 DB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원으로서의

<표 1> DB작성을 위한 분류 틀

자원중분류	자원소분류 ¹⁾	제목	시도	지역명	키워드	지정여부	활용유형 ²⁾	사업주체 ³⁾
6개 중분류	27개 소분류	사례명 작성	특광역시 · 도단위	시군 단위	제목, 내용의 키워드	문화재, 권리확보등	6개 유형	4개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자원	생활기술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용품
	유적·유물	서원·향교/ 고택·고궁/ 성곽·산성/ 능/ 누각·정자/ 종교유적/ 유적지
무형자원	민속	춤·음악/ 놀이
	공동체활동	동제/ 지역행사/ 재래시장
환경자원	경관	산·숲/ 강·호수·바다·해안·섬/ 계곡·동굴·폭포/ 저수지/ 공원/ 농원/ 나무·풀·꽃·동물/ 약수·온천·마을·거리
	전시관	박물관·기념관/ 문화원

활용실태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검색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범위로 중앙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는 특광역시(기술센터 포함), 전국 9개도(도농업기술원 포함), 농업기술센터, 민간단체로는 한국관광공사,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 관광농원협회,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게재자료로 한정하였다.

나. 조사체계

조사된 자료는 DB작성을 위한 분류틀에 의하여 목록화 하였으며 DB내용은 자원종분류, 자원소분류, 사례제목, 시도, 지역명, 키워드, 지정여부, 활용유형, 사업주체로 구분하였다. DB작성을 위한 분류틀은 <표 1>과 같다.

- 1) 조사(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의 분류
- 2) 활용유형 : 개별 전통지식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활성화 여부에 준하여 상품화, 향토음식, 축제, 교육, 관광, 공모전으로 구분
- 3) 사업주체 : 개인, 민간단체, 지자체, 중앙기관으로 구분

<표 2> 분류표에 의한 전통지식 자원 검색 결과

전통지식 자원			N (%)	전통지식 자원			N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자원	생활기술	의생활	61 (0.7)	환경자원	경관	산·숲	518 (5.8)
		식생활	1,859 (20.9)			강·호수·바다·해	447 (5.0)
		주생활	8 (0.1)			안·섬	
		생활용품	927 (10.4)			계곡·동굴·폭포	254 (2.9)
		소계	2,855 (32.1)			저수지	103 (1.2)
	유적·유물	서원·향교	165 (1.9)			공원	166 (1.9)
		고택·고궁	274 (3.1)			나무·풀·꽃·동물	239 (2.7)
		성곽·산성	161 (1.8)			약수·온천	75 (0.8)
		능	118 (1.3)			마을·거리	246 (2.7)
		누각·정자	90 (1.0)			농원	124 (1.4)
무형자원	민속	종교유적	493 (5.5)			소계	2,172 (24.4)
		유적지	117 (1.3)		전시관	박물관·기념관	500 (5.6)
		소계	1,418 (15.9)			문화원	196 (2.2)
		계	4,273 (48.0)			소계	696 (7.8)
						계	2,868 (32.2)
	공동체활동	춤·음악	209 (2.3)			합계	8,906 (100.0)
		놀이	211 (2.4)				
		소계	420 (4.7)				
		동제	257 (2.9)				
		지역행사	981 (11.0)				
		재래시장	107 (1.2)				
		소계	1,345 (15.1)				
		계	1,765 (19.8)				

다. 결과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χ^2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현황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전국의 전통지식 자원은 총 8,906건으로 <표 2>와 같이 유형자원 48.0%, 환경자원 32.2%, 무형자원 19.8%이었다. 중분류로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생활기술 32.1%, 경관 24.4%, 유적·유물 15.9%, 공동체활동 15.1%, 전시관 7.8%, 민속 4.7%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자원 중 생활기술에서 식생활(20.9%)과 생활용품(10.4%)이, 유적·유물에서 종교유적(5.5%)과 고택·고궁(3.1%)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무형자원에서는 공동체활동인 지역행사(11.0%)가, 환경자원에서는 경관의 산·숲(5.8%)이 많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었다.

나.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3>와 같이 관광이 40.2%로 가장 많았고, 상품화 21.0%, 축제 18.6%, 교육 7.8%, 공모전 6.9%, 향토음식 5.5%으로 나타났다.

전통지식 자원별로 활용되고 있는 유형을 보면 <표 4>와 같이 생활기술의 경우 상품화·공모전·향토음식의 유형으로, 유적·유물은 관광자원으로, 민속은 축제로서, 공동체활동은 축제와 관광자원으로, 경관은 관광자원과 상품화로서, 전시관은 전통지식 자원에 대한 교육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경관과 유적·유물의 관광자원화, 생활기술의 상품화, 민속과 공동체활동의 축제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사업주체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사업주체를 볼 때 <표 5>와 같이 개인(45.0%)과 지자체(31.3%)가 주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간단체(14.5%)와 중앙 기관(9.2%)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통지식 자원별 사업주체는 <표 6>과 같이

<표 3>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

구 분	상품화	향토음식	축 제	교 육	관 광	공모전	계
N(%)	1,870(21.0)	493(5.5)	1,658(18.6)	696(7.8)	3,576(40.2)	613(6.9)	8,906(100.0)

<표 4> 전통지식 자원별 활용유형

활용유형 전통지식자원	상품화	향토음식	축 제	교 육	관 광	공모전	계	N(%)
생활기술	1,749(61.3)	493(17.3)	-	-	-	613(21.4)	2,855(100.0)	
유적·유물	-	-	-	-	1,418(100.0)	-	1,418(100.0)	
민 속	-	-	420(100.0)	-	-	-	420(100.0)	
공동체활동	-	-	1,238(92.0)	-	107(8.0)	-	1,345(100.0)	
경 관	121(5.6)	-	-	-	2,051(94.4)	-	2,172(100.0)	
전 시 관	-	-	-	696(100.0)	-	-	696(100.0)	
계	1,870(21.0)	493(5.5)	1,658(18.6)	696(7.8)	3,576(40.2)	613(6.9)	8,906(100.0)	

생활기술과 민속에 관련된 전통지식자원은 개인이 사업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동체활동의 경우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유적·유물과 경관 등 환경자원은 다른 부문에서 와 달리 지자체와 중앙기관의 사업활동이 크게 나타났다.

전통지식 자원 활용유형별 사업주체는 <표 7>과 같이 상품화, 향토음식, 공모전은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축제는 개인과 민간단체·지자체의 사업이 주가 되고 있었다. 관광과 교육 부문은 다른 활용유형에 비해 지자체와 중앙기관이 사업주체로서의 참여가 많았고, 특히 지자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라. 전통지식 자원·활용유형·사업주체간 연계성

전통지식자원, 활용유형, 사업주체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면 유형자원 중에서 생활기술은 상품화, 향토음식, 공모전의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개인들이 해당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유적·유물은 관광자원으로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기관이 담당

하고 있었다. 무형자원 중 민속과 공동체활동은 축제로서 활용되고 있었는데, 민속부문은 개인이, 공동체활동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자원인 경관과 전시관은 다른 것에 비해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모두 사업주체로서의 활동이 비교적 고른 부문이었다.

4. 결론 및 제언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은 총 8,906건으로 이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유형자원으로서의 생활기술이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 자원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무형자원으로서 공동체활동인 지역행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각 시도에서 전통지식 자원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은 관광, 상품화, 축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생활기술은 상품화로, 민속과 공동체활동은 축제로, 경관은 관광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주체는 개인

<표 5>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사업주체

구 분	개 인	민간단체	지자체	중앙기관	계
N(%)	4,012(45.0)	1,291(14.5)	2,785(31.3)	818(9.2)	8,906(100.0)

<표 6> 전통지식 자원별 사업주체

사업주체 자원별	개 인	민간단체	지자체	중 앙	계	N(%)
생활기술	2,757 (96.6)	98 (3.4)	-	-	2,955	(100.0)
유적·유물	183 (12.9)	-	848 (59.8)	387 (27.3)	1,418	(100.0)
민 속	338 (80.5)	82 (19.5)	-	-	420	(100.0)
공동체활동	232 (17.3)	566 (42.0)	539 (40.1)	8 (0.6)	1,345	(100.0)
경 관	245 (11.3)	295 (13.6)	1,240 (57.0)	392 (18.1)	2,172	(100.0)
전 시 관	257 (36.9)	250 (35.9)	158 (22.7)	31 (4.5)	696	(100.0)
계	4,012 (45.0)	1,291 (14.5)	2,785 (31.3)	818 (9.2)	8,906	(100.0)

<표 7> 전통지식 자원 활용유형별 사업주체

활용유형	사업주체	N(%)				
		개인	민간단체	지자체	중앙	계
상품화	1,721 (92.0)	143 (7.7)	6 (0.3)	-	1,870 (100.0)	
향토음식	493 (100.0)	-	-	-	493 (100.0)	
축제	555 (33.5)	646 (38.9)	449 (27.1)	8 (0.5)	1,658 (100.0)	
교육	257 (36.9)	250 (35.9)	158 (22.7)	31 (4.5)	696 (100.0)	
관광	373 (10.4)	252 (7.1)	2,172 (60.7)	779 (21.8)	3,576 (100.0)	
공모전	613 (100.0)	-	-	-	613 (100.0)	
계	4,012 (45.0)	1,291 (14.5)	2,785 (31.3)	818 (9.2)	8,906 (100.0)	

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상품화와 향토음식은 개인, 축제는 민간단체, 관광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자원 활용측면에서 생활기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춤·음악, 놀이 등의 민속부문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사업성, 경제성 여부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지식 자원활용의 성공여부와 경제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전통지식·자원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인식하고 보호육성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성 부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활용유형별로 전통지식활용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자면 관광은 유형자원 뿐만 아니라 무형자원에 대한 자원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축제는 양적인 팽창만큼이나 질적으로도 전통지식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재검토하고 지역, 시기, 스토리 등의 다양화를 통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요청된다.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는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광·축제 등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상품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성·

<표 8> 전통지식자원·활용유형·사업주체간 연계성

전통지식자원		활용유형	사업주체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
유형자원	생활기술	상품화	★			
		향토음식	★			
		공모전	★			
	유적·유물	관광			★	★
무형자원	민속	축제	★			
	공동체활동	축제		★	★	
환경자원	경관	관광	★	★	★	★
	전시관	교육	★	★	★	★

역사성을 고려한 향토식 개발,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헌고증 및 제품특성 구명 등이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

로 전통지식·자원을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업주체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